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2. 24.(월) 총 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<b>공공주택추진단</b>	<b>담당자</b>	• 단장 김정희, 팀장 김승범, 사무관 하태아 • ☎ (044) 201 - 4505, 4526
	<b>교통정책조정과</b>	<b>담당자</b>	• 단장 안석환, 서기관 나민희 • ☎ (044) 201 - 3792
	<b>도시광역교통과</b>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건수, 사무관 박동감 • ☎ (044) 201 - 3812
<b>보도일시</b>		<b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

## 신규택지는 교통이 편리하게 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

□ 12.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(4곳)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\*하였으며,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

\* (기존) 지구계획 수립 단계 → (개선) 지구지정 제안 단계

-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습니다.
- 향후,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.
-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, 주택/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,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.
- 참고로,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.

-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12.24) >

◆ 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

-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 비용 2기 신도시의 2배로 늘릴 전망
- 부담금 산정·집행기준 불투명, 차일피일 건설 미루면 속수무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하태아 사무관(☎044-201-45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